

주 일 예 배

2020년 1월 19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91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휘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Matthew) 11:25-30	이규본목사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The saints walking with the Lord”	이규본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363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월 헌금 송:** 1/19: 에스터선교회, 1/26: 글로벌선교회
- ERTS:**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개강하였습니다. USAamen.net 과 한국일보(1/18/20) 광고가 게재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및 셀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생일을 축하 합니다. 전행복 전도사, 장영순 권사, 장수자 권사, 조승순 집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주의말씀

(1.19.2020)

본문: 마태복음 11:25-30

제목: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2020년 새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역사는 어디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새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출발한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모두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 할 수 있습니까?

1.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

수고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 입니까? 가난한자이거나 어려운 문제를 가진 자들 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자도 권력을 가진 자도 낮은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스트레스와 고통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시대를 달려 갈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마음이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2.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요일 2:24).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보자”(히 12: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3.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

“내 멍에는 쉽고”에서, 쉽고(크레스토스)란 ‘부드럽다.’ ‘안락하다.’ ‘은혜스럽다.’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 됩니다. 즉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잘 맞추어 입은 옷은 날아갈 듯이 편안합니다. 안 맞는 옷이나 신발은 불편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편안 합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어집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도 편안합니다. 어떤 처지와 어려운 형편과 무서운 죄의 짐을 진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 다 용서함 받고 새 사람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큰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며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첫째 경제적인 짐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추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재벌의 총수들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고 큰 재벌의 총수가 한 말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난한자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 기업이 도산되지 않도록 세계를 누비고 다니다가 그 큰 기업은 무너지고 그 총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마음이 안타깝다. 경제적인 문제와 고통은 실제로 마음에 있는 것이 라고 생각 된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 답이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마 11:29).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면 마음에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적인 의무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600가지가 넘는 의무를 지켜야 했다. 그들은 단 하루라도 자신을 평안하게 용납하지 못하였다. 매일 매 순간 스스로 달달 복아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좀더 거룩해지기 위해 자진하여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안은 없었다. 그러므로 점점 더 금식하거나 고행의 강도를 높여 갔다. 그것이 당시의 계명이었고 율법 이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초청 하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셋째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가혹하게 사람을 더 큰 욕망으로 몰고 가서 결국 그 사람은 파멸에 빠지게 된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다 권력은 한번 잡으면 놓고 싶지 않다. 나중에는 혼자서 영구적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비참한 멸망을 경험하고 끝이 난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가 와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 (01192020)

2020년 기도제목

1.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 성장,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하고 사랑하자)
3. 성전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4.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EM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5. Cell 모임을 배가 되게 하소서
6. ERTS신학교가 부흥케 하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당임 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현종영
- *교육전도사: 전행복(EM), 정영희(주일학교)
- *전도사: 박휘영, 한우연
- *권사 : 이재숙
- *안수집사 :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 이재숙 *반주 : 서남숙
- *찬양대: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 배 시 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새 시대를 열어 주는 교회(요1:51)
 “The Church Opens a New Era”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